

광주경총, 지역 주력산업 경영난 해소 앞장선다

가전사업 고용 안정 활성화 사업
참여 희망 기업·구직자 집중 모집
신규 입사자 최대 400만원 지원

광주경제진흥협회가 지역 주력산업의 경영난을 막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광주경제진흥협회는 지역 주력기업 위기에 따른 가동 중단 및 채용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융·복합 가전산업 고용 안정 활성화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 및 구직자를 집중 모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우위니아 사태 등 주력 앵커기업의 경영난으로 2, 3차 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공장 가동 중단과 구인난을 타개하기 위한 공격 마중물 지원책이다.

광주시 소재 융·복합 가전산업 및 전후방 연관 기업과 만 15세~59세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공공 고용망 연계부터 채용, 현장 적응, 장기 근속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사업은 크게 세 가지 핵심 트랙으로 나눠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든든 버팀 안착 지원'은 신규 입사자 1인당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투입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동시에 덜어준다. 이 중 300만원은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로 지원되며, 100만원은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에게 근속 축하금 형태로 일

시 지급된다.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핵심 기술 단절을 막기 위한 '현장 이음 상생 지원'도 함께 가동된다. 사내 직무 교육을 전담하는 숙련 재직자(사수)와 신규 입사자(부사수)를 1:1로 매칭하는 멘토링 시스템이다.

신규 입사자가 6개월 근속을 달성하면, 직무 지도를 맡은 재직자에게 60만원의 고용 안정 성공 인센티브를 일시 지급해 자발적인 기술 전수와 상생하는 조직문화를 이끈다.

아울러 채용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탈을 막기 위한 '동행 마중 연계 지원'이 뒷받침된다.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할 경우 5만원의 면접비를 지원해 구직 활동의 부담을 덜고, 입사 후 1개월을 만근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50만원의 취업 성공 축하금을 지급해 초기 이탈을 방어한다.

더불어 기업에는 신규 인력의 원활한 현장 융화를 도울 수 있도록 소동 간담회비를 신규 채용 1인당 50만원(기입당 최대 4명, 2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 12월31일까지 진행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대내외적 악재로 당장 버티기 힘들어 신규 채용마저 주저하는 지역 가전·뿌리기업들이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혜택을 받아 고용 안정을 이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얼어붙은 지역 채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튼튼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임채민기자



광주경제진흥협회가 주최한 '2026년 제1회 찾아가는 구인기업 발굴단' 행사를 운영했다.

(광주경제진흥협회사원들) 제공

광주일자리재단 '찾아가는 구인기업 발굴단' 운영

세방전지 광주공장 방문 현장면접

광주경제진흥협회사원들이 29일 "최근 세방전지 광주공장에서 '2026년 제1회 찾아가는 구인기업 발굴단' 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와 구인저 감소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직접 찾아가 채용 수요를 발굴하고, 구직자와 기업을 현장에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방전지 광주공장 현장에서는 ▲현장 면접 및 채용행사(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구직자 취업서비스 지원(취업성공 3-STEP 연계) ▲고용외 시스템을 통한 구직등록 지원 등이 이뤄졌으며, 기업과 구직자 간 실질적인 매칭 지원이 진행됐다.

세방전지 광주공장은 전기·전자 부품조립(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24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으로, 이번 현장 면접은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재단은 현장 참여자와 광주공장 근로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커피트럭을 지원해 채용 행사 참여 분위기를 높이고, 근로환경 개선과 기업 현장의 만족도 제고에도 힘을 보탤다.

신한국 광주경제진흥협회사원들이 대표이사는 "찾아가는 구인기업 발굴단은 단순 구인등록을 넘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채용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구직자 간 실질적인 일자리 연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콘진원, '공공기관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수출 판로 확대 등 동반성장 성과 인정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콘진원은 13개 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특히 기타공공기관 가운데 최고 특점을 기록해 동반성장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콘진원은 이번 평가에서 콘텐츠 산업 특성을 반영한 협력 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성장 기반 확대 성과를 높이 인정받았다.

특히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지속 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콘진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혁신 생태계 구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과 중소 방송영상제작사

간 협력 체계 구축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를 통한 콘텐츠 지식재산(IP) 중심의 이종 산업 협력 기회 확대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만드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반 상생 활동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콘진원은 해외 각지에 비즈니스센터 운영하며 중소·영세 콘텐츠 기업의 현지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상담, 협력망 구축, 사업화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글로벌 K-콘텐츠의 파급력을 활용해 식품, 소비재, 관광 등 연관 산업의 해외 수요를 넓히며 수출 활로 개척에도 성과를 냈다. 콘텐츠 산업의 성장 성과가 다른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국가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보탤다. /안태호기자

전남 양파 재배면적 확대...최대 주산지 입지 강화

재배면적 6천72ha 전년비 1.5% 증가

마늘 역시 4.5% ↑...생산 기반 늘어

올해 전국 최대 양파 주산지인 전남 지역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며 생산 기반이 한층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마늘·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남의 양파 재배면적은 6천72ha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천979ha보다 1.5% 증가한 수치로 시도별 전국 재배면적은 전남에 이어 경남(3천855ha), 경북(2천225ha), 전북(1천977ha)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남은 전국 최대 양파 생산지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양파는 전남을 대표하는 노지 채소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유통망을 바탕으로 전국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상 여건과 수확이 빠른 조생종 선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재배면적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국 양파 재배면적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만8천614ha에서 지난해 1만7천677ha, 올해 1만7천600ha로 2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대구가 2025년 711ha에서 올해 506ha로, 전북이 같은기간 2천103ha에서 1천977ha로 크게 감소한 것이 전체 재배면적 축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마늘 재배면적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전남의 마늘 재배면적은 3천23ha로 전년 대비 4.5%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도 마늘 재배면적은 올해 2만4천170ha로, 1년 전보다 5.3%(1천233ha)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마늘 재배면적은 지난해 가격 상승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 마늘 재배면적은 경남(7천857ha), 경북(5천273ha), 충남(3천768ha), 전남(3천233ha)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마늘과 양파는 서로 대체 작물 성격이 강해 재배면적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양파는 노동비 부담이 적고 출하가 빠른 조생종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안태호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